

고등과학원의 봄을 맞이하며

말 그대로 꽃 피는 봄이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다 싶었는데, 요즘은 캠퍼스 전체가 색색의 화사한 꽃들로 뒤덮여 생기를 뿜어내고 있다. 엇그제부터 봄비까지 내려 기숙사와 연구실을 오갈 때마다 푸른 잎들과 화사한 꽃잎이 봄비와 어우러져 자연의 생동감을 만끽하게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기숙사 리모델링 후 새로 옮긴 방은 세탁실 바로 밑이라서 밤마다 소음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창 밖에 보이는 꽃나무와 산등성이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보너스로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까지...

고등과학원에 짐을 푼 것이 작년 8월 말이니 벌써 8개월이 다 되어 간다. 자연은 이렇게 싱싱한 생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요즘 내 몸 상태는 그다지 훌륭한 것 같진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생활과는 달리, 불과 1년 전까지 이래저래 마음 쓸 일이 많았던 탓에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터져서 이제서야 나타나나 보다. 그리고 보니 이 글을 쓰는 지금 달력을 보고 있자니, 내일이 바로 병석에 계시던 어머니를 떠나 보낸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있었던 탓에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도 다소 매끄럽지 못했고, 졸업 직후까지도 이후의 진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거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러던 차에 예전 과 선배이신 현창봉 교수님께서 중앙대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내가 학위를 받기 직전, 현창봉 교수님께서 중앙대에 계실 때에 한 번 찾아간 적이 있고 그러면서 박사 후 얘기가 오갔었는데, 그후 고등과학원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아... 고등과학원이라! 반신반의하면서 급히 지원서류를 보냈는데 정말 다행히도 자리가 주어졌다. 수습이 안 되던 나를 고등과학원이 구원해 준 셈이다.

우리 그룹의 연구분야는 이론/계산 생물물리학이다. 박사과정 때까지는 단백질 접힘에 관련된 계산을 했었는데, 생물물리학은 단백질 구조 및 접힘도 포함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현상들을 물리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법칙성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세포 생물학과 물리학, 화학적 지식, molecular simulation 등 다양한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대상의 scale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은 RNA와 osmolyte 간의 interaction이 어떻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RNA의 2차구조와 3차구조를 안정화 또는 불안정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안점인데, 이런 경우 RNA base-pair와 물, osmolyte, counterion들 간의 electrostatic interaction, hydrogen bond interaction 등을 분자수준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atomistic simulation을 하는 수밖에 없다.

걸음마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실 거창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 가느냐가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다. 지난했던 시절이 가고 몸을 추스를 시점에 고등과학원이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는 나를 배려한 듯이 정말 평화롭다. 어쩌면 항상 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여유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을 떠나는 날 편안하고, 조금은 뿌듯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길 바란다.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봄이 깃들기를. [KIAS](#)



글_윤제성·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연구원